

송전탑 많은 '광양', 송전선로 4개·송전탑 건설 추진

2033년까지 4개선로 준공 예정... 지역민 반발

전남 광양변전소와 세풍변전소를 기점으로 4건의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와 남부건설본부가 광양시에서 시작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타진했다.

한전은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광양시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에 전력수송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를 확충하는 사업에 포함됐다.

광양시 기준 송전선로는 예정지는 ▲345kV 광양 변전소~신강진 변전소 ▲345kV 광양 변전소~신장수 변전소 ▲154kV 광양 변전소~세풍 변전소 ▲154kV 세풍 변전소~순천 구간으로 2030년 12월부터 2033년 10월까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신강진' 구간은 광양시(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강진, 영암, 장흥, 화순, 보성, 순천 일원에서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광양~신장수' 99km 구간은 광양시(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월면, 진상면, 다압면),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진안, 경남 함양, 산청, 하동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광양~세풍' 구간은 광양시 광양읍 9개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리(죽림, 사곡, 용강, 초남, 익신, 목성, 인동, 도월, 세풍)에서 9.7km 구간에 약 25기의 송전탑이 예정됐다.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또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인 '세풍~순천' 구간은 16.5km 구간에 약 41기의 송전탑과 선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광양시

광양읍 10개리(구산, 우산, 목성, 읍내, 칠성, 인동, 인서, 덕래, 도월, 세풍), 봉강면, 순천시(서면, 석현동, 가곡동, 왕지동, 해룡면)가 사업 구역이다.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를 돌며 설명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양 등 일부 지역민들은 환경단체와 연대해 송전

선로 및 송전탑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광양시에서는 10여 년 전 광양~신강진 송전선로 설치 반대 운동이 거셴다. 지역민들은 광양 백운산 등 송전탑 설치 반대와 함께 지중화를 요구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올해 수능 광주도 '사탐' 심화... 수험생 5.3% 증가 자연계열 수험생 상대적 쉬운 사회탐구 선택 EBS 교재 학습 강화·문항 선택지 정확성 중요

2026학년도 광주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도 자연계열 지원자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는 1만7731명으로 전년도 대비 885명(5.3%)가 증가했다.

재학생이 974명(8.3%),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88명(11.9%) 각각 증가한 반면, 졸업생은 177명(4.0%) 감소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인 고3 재학생이 증가하고, 졸업생은 감소했는데 이는 의대 정원 원상복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 영역별 지원 현황은 국어가 화법과작문 71.8%, 언어와 매체 27.5%이고, 수학은 확률과통계 50.9%, 미적분 41.9%, 기하 3.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전년

도 9.7%에서 13.3%로 증가했다. 이는 과학탐구 필수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탐구 선택자가 늘어난 '사탐'이 심화된 현상이다.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생활과윤리 32.5%, 사회문화 32.4%, 한국사 9.1% 순이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 I 33.9%, 지구과학 I 32.5%, 물리학 I 17.0%, 화학 I 10.9% 순이다.

사회탐구 1개와 과학탐구 1개를 선택한 지원자의 선택과목은 사회문화 30.3%, 생명과학 I 25.0%, 지구과학 I 18.4%, 생활과윤리 11.4% 순이다.

이러한 사탐 현상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생명과학 I 과 사회문화를 선택한 조합이 가장 많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은 서울권대학 지역균형선형과 지역거점대학 학생부교과선형을 공략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 학생은 학생부종합선형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했다. /염선호 기자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에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남겨진 유족들은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성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남겨진 유족들은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름 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올해 1월29일 전남 진도군 내 자택에서 의붓어머니 B(6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B씨가 친아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군의 폭행으로 넘어진 B씨가 자식이 부모를 쫓다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태어난 지 3개월여 만에 B씨의 집 앞에 버려졌다. B씨는 법적인 입양 절차 없이 A군을 키웠다.

생후 석달만에 버려져 키워준 의붓어머니와 다투다 범행 "패륜 범죄, 엄벌"... "학대 당해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범행동기, 배심원단 양형 의견 고려" 장기 12년·단기 7년

A군은 공사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모자 관계로서 애정은 있었지만 B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학대 피해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군이 B씨 살해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을 거듭 반복, 엄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매우 지능적인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실제 숨진 B씨가 A군에게 친자식과 차별하는 듯한 폭언을 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어 범행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어머니였던 B씨의 목숨을 빼앗은 패륜적 범죄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군 범법 대리인은 "A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B씨의 친아들들)을 대신해 고관절과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간병했다. B씨는 A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다시 버려질까 두려운 고립감에 학대 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후 변론에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됐다. 사는 게 두렵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

를 달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부디 선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제외)은 모두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평의를 참고해 A군에 대해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뒷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B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이후 태도와 정황, 배심원단 양형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오연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